도심에서 가까운 스키장 및 알프스 한복판 스키장

파우더 스노우는 보너스

스키로 국경도 넘고 스키로만 갈 수 있는 산장 식당에서 미식 체험도 즐기고
007 제임스 본드 스키 추격전도 도전해 보고
프리스타일 스키어와 보더 위한 스릴 넘치는 스노우 파크는 기본
도시 관광 즐기다 하루쯤 스키 vs 산속에 틀어박혀 일주일 스키
"내 생애 첫 스키 체험(First Ski Experience)"으로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스키-인 스키-아웃?
설국 열차 타고 겨울 드라마

스위스 겨울은 스키 없이 논할 수 없다. 스위스 엄마 아빠들은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만큼 작아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향한다. 열 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슬로프 밖으로 점프해 쏜살같이 질주한다. 10 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4-5 월까지 계속되는 기나긴 스위스 겨울은 스키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가족끼리 함께 스키를 타며 겨울을 보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또다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스키로 겨울을 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즐기는 놀이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스키는 스위스의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겨울 관광의 선두가 되었다. 스위스의 스키장들은 몇 년 전부터 '내 생애 첫 스키 체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알려나가고 있다. 완전한 스키 장비, 반일 스키 패스, 스키 강습을 포함한 내 생애 첫 스키 체험 패키지를 구성하고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스위스에서 단기 체류를 하는 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스위스까지 멀리 여행을 가도 정통 알프스 겨울 체험을 하기 힘든 아시아 여행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편리하게 알프스의 겨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내 생애 첫 스키 체험' 패키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알프스의 건강한 겨울 공기를 마시고 눈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스위스의 겨울 관광은 그 역사가 150 년이 넘는다. 1800 년대 중반, 눈 덮인 알프스는 사람의 발자국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다 유익하고 건조한 겨울 산 공기에 치료의 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회복을 위해 산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눈 속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겨울 관광의 태초가 되었다. 영국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겨울에 다시 찾아오면 셔츠 바람에 발코니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게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비용을 몽땅 물어주겠다'는 내기 한 판을 걸어 단박에 유명해진 생모리츠(St. Moritz)는 스위스 겨울 관광의 선구자인 리조트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스위스의 스키 리조트는 가장 가깝게 스위스의 자연을 체험하면서 스키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 오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스키인 스키아웃(Ski-in Ski-out) 호텔"이다. 그 컨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파우더 스노우를 뿌리고 산 정상부터 짜릿한 스키를 즐기면서 내려오다가 어딘가에서 멈추어 무거운 스키와 부츠를 끌고 호텔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스위스답지 못하다. '정녕 스위스다운 스키'란 알프스 정상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산장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한 잔 곁들여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다시 스키를 타고 산 밑으로 내려와 휙, 커브를 돌아 묵고 있는 호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키를 신은 채로 말이다. 알프스 정상부터 호텔 문 앞까지가 모두 스키장인 곳, 그곳이 바로 스위스다. 이렇게 정녕 스위스다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을 "스키인 스키아웃 호텔"이라 부른다. 요즘은 스파 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진 스키장 호텔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호텔에서 묵으며 정통 스위스 겨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폐 질환을 고치려고 인적 없는 알프스 겨울 산을 찾았다가 건강도 회복하고 눈 속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했던 1800 년 중반의 유럽인들처럼, 겨울 스위스 알프스에서 정통 스키를 체험해 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대표 스키장을 소개한다.

I. 루체른(Luzern) 근교 스키장

1. 슈토스(Stoos):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큘러로 오르는 스키장
루체른(Luzern)에서 45 분 거리에 있는 슈비츠(Schwyz)에서 스키장으로 오르는 퓨니큘러가 운행된다. 스위스에서도 가족 단위 휴양지로 유명한 슈비츠 칸톤에 있는 산악 마을, 슈토스(Stoos)에는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1,922m)이라는 산이 있다. 정상에서부터 이어지는 스키장을 따라 내려오며 탄성을 자아내는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열 개나 되는 호수가 스키장을 따라 이어진다. 주변으로는 필라투스(Pilatus), 리기(Rigi), 샌티스(Säntis)를 포함한 알프스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다.

프론알프슈톡 스키장에는 9 개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총 35km 의 슬로프가 여기저기 얽혀있다. 보더들을 위한 스노우파크도 마련되어 있다. 겨울 스포츠 스쿨도 운영되고 있어, 스키를 배우려는 꼬마 아이들이 모여 있기도 하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로 슈토스 주변에 펼쳐진 10km 넘는 트랙을 글라이딩해 보아도 좋다. 썰매나 에어보드용 슬로프도 2km 길이나 된다. 겨울 하이킹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2021 년 12 월 11 일부터 2022 년 4 월 18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성인 기준 CHF 52 다.

2. 엥겔베르크(Engelberg): 엄청난 다채로움
루체른에서 45 분 거리에 있는 엥겔베르크는 겨우내, 그리고 봄까지 햇살이 풍성한 스키장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스키 코스 및 프리라이드 코스로도 유명하다. 세계 최초의 회전 케이블카, 티틀리스 로테어(Titlis Rotair)로 스키장을 향할 때 빙하 세상으로 오르는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12km 길이의 하강 코스가 티틀리스 정상부터 엥겔베르크까지 이어지는데, 이 코스가 티틀리스 스키장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해발고도 차가 무려 2,000m 나 된다. 요흐 패스(Joch Pass) 스키장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칸톤까지 뻗어나 있다. 엥겔베르크의 남쪽 면은 차분한 분위기다. 초급, 가족, 그룹에 적당한 브룬니(Brunni) 스키장이 있는데 한결 여유롭다. 계곡으로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딕 워킹, 겨울 하이킹, 마차, 썰매를 즐기는 이들로 분주하다.

2021 년 10 월 9 일부터 2022 년 5 월 22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성인 기준 CHF 68 이다. 트륍제(Trübsee)나 브룬니 스키장에 한정된 티켓은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산이라는 마테호른(Matterhorn)이 내려다보는 마을, 체르마트는 세계적으로 정평 난 스키 리조트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83m)에서 스키를 타고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고,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3,089m)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썰매 코스나 겨울 하이킹 트레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게다가 빙하특급(Glacier Express)가 이곳에서 출발하고 도착한다. 체르마트의 겨울은 누구나 반하게 만들만한 마법을 품고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체르마트의 스키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수네가(Sunnegga)-로트호른(Rothorn) 스키장과 고르너그라트-슈톡호른(Stockhorn) 스키장, 그리고 슈바르츠제(Schwarzsee) 및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 스키장이다. 이 세 곳의 슬로프 길이를 모두 합치면 360km 나 된다. 올림픽 유망주들과 국가대표팀들이 체르마트의 스노우파크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겨우내 훈련을 하는데, 스노우보더들에게 인기다.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국경을 넘는 스키장도 체르마트에서 시작된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정상에서 이어지는 이 코스는 이탈리아의 스키장, 브레우일(Breuil)-체르비냐(Cervinia)로 향한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겨울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보아도 좋고, 오프 피스트 헬리스키도 가능하다. 물론, 공식 산악 가이드가 동반한다.

2020 년 11 월 1 일부터 2021 년 5 월 2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일찍 예매할수록 더 저렴해지는 시스템인데, 몇 달 전에 예약하면 원래 성인 기준 CHF 90 대의 1 일 티켓을 CHF 50 대로 예약할 수 있다.

3. 리기 칼트바트(Rigi Kaltbad): 스파가 있는 스키 리조트
리기 칼트바트로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벡기스(Weggis)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비츠나우(Vitznau) 혹은 골다우(Goldau)에서 유럽 최초의 톱니바퀴를 타는 것이다. 리기 칼트바트에서는 루체른 호수 위로 고집스럽게 내려앉은 안개 위로 햇살이 찬란히 비춘다. 이 위에서는 할 일이 천지다. 스릴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 있거나,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원하거나 이곳을 찾기 잘한 일이다. 썰매나 스노우슈는 물론, 심지어 노천 온천도 즐길 수 있다. 봉우리 위에서 중앙 스위스에 펼쳐져 있는 대단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캔첼리(Känzeli)” 전망대에서의 노을은 환상적이다.

차량 진입이 금지된 리기 칼트바트는 리기 산의 일부로, 평온과 청명한 공기가 내려앉은 마을이다. 연중 맑은 날로도 유명한 곳이다. 스키장, 썰매장, 아이스링크, 파노라마 크로스컨트리 코스, 마차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로 가득해 스위스 가족들에게 인기다. 리기 칼트바트에 있는 스키 스쿨에서는 초급 스키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강습도 받을 수 있다.

2021 년 12 월 1 일부터 2022 년 3 월 31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성인 기준 CHF 72 다.

II. 알프스 한복판 스키장

4. 뮈렌(Mürren): 플렉스, 007 스키
이 세상에 제임스 본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 그칠 것이다. 쉴트호른(Schilthorn) 정상에 있는 회전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1960 년대의 007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뮈렌이라는 마을은 쉴트호른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주는 작은 알프스 산골 마을이다. 해발고도 1,650m 에 자리한 마을은 베른(Bern) 칸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거주지다.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 청명한 마을이다.

뮈렌은 겨울 스포츠 매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마을이다. 뮈렌-쉴트호른을 잇는 53km 의 스키 및 보드 슬로프와 썰매 코스는 물론, 얽히고설킨 겨울 하이킹 트레일이 대단한 풍경을 선사한다.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계곡과 아이거(Eiger), 융프라우(Jungfrau), 묀히(Mönch) 봉우리가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진다. 30 여 종류가 넘는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때문에 융프라우 지역에 펼쳐진

다른 스키장으로의 연결도 쉽다.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와 라우터브루넨 사이를 잇는 계곡에서는 11km 에 달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이 펼쳐진다.

2021 년 12 월 12 일부터 2022 년 4 월 25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성인 기준 CHF 69 다.

5. 체르마트(Zermatt): 스키하면 단연, 체르마트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산이라는 마테호른(Matterhorn)이 내려다보는 마을, 체르마트는 세계적으로 정평 난 스키 리조트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83m)에서 스키를 타고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고,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3,089m)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썰매 코스나 겨울 하이킹 트레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게다가 빙하특급(Glacier Express)가 이곳에서 출발하고 도착한다. 체르마트의 겨울은 누구나 반하게 만들만한 마법을 품고 있다.

체르마트의 스키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수네가(Sunnegga)-로트호른(Rothorn) 스키장과 고르너그라트-슈톡호른(Stockhorn) 스키장, 그리고 슈바르츠제(Schwarzsee) 및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 스키장이다. 이 세 곳의 슬로프 길이를 모두 합치면 360km 나 된다. 올림픽 유망주들과 국가대표팀들이 체르마트의 스노우파크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겨우내 훈련을 하는데, 스노우보더들에게 인기다.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국경을 넘는 스키장도 체르마트에서 시작된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정상에서 이어지는 이 코스는 이탈리아의 스키장, 브레우일(Breuil)-체르비냐(Cervinia)로 향한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겨울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보아도 좋고, 오프 피스트 헬리스키도 가능하다. 물론, 공식 산악 가이드가 동반한다.

2021 년 11 월 1 일부터 2022 년 5 월 1 일까지 오픈한다.
스키 패스는 성인 기준 CHF 79 다.

***** 스위스 전국 스키장 정보**
스위스 전역의 스키장 정보 및 스노우 리포트를 아래 링크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https://snow.myswitzerland.com/snow_reports/

III. 설국 기차

1. 눈꽃기차 특실에 앉아 우아한 정찬과 샴페인 즐기며 심연한 겨울 풍경 속 달리기
마테호른(Matterhorn)이 우뚝 솟아 있는 알프스 산골 마을 체르마트부터 패셔너블한 리조트 생모리츠까지 이어주는 특별한 파노라마 기차다. 튀지스(Thusis)부터 이어지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철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감동적인 알프스 깊숙한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베르니나 고개(Bernina Pass)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며 짜릿한 풍경을 안겨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7 개의 계곡과 291 개의 다리, 91 개의 터널을 지나며 약 7 시간 30 분에 걸쳐 달리는데, 구름 속을 뚫고 올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알프스의 비밀스런 풍경과 위엄한 알프스 절벽을 지나는 광경도 보여준다. 특히 아찔한 돌다리, 란트바써 비아둑트(Landwasser Viaduc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오버알프 고개(Operalp Pass), 라인슐루흐트 계곡(Rheinschlucht Gorge), 푸르카 터널(Furka Tunnel)을 지나며 기막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정 중 가장 높은 지점은 오버발트 고개(Operalp Pass)로, 2,033m 에 달한다.

로컬들이나 유럽 여행자들은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 전 구간을 탑승해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즐긴다. 특히, 일등석보다 우위에 있는 엑설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 탑승 자체를 데이트 코스로 생각하는 노부부도 볼 수 있다. 더욱 안락한 좌석에 앉아 최고의 뷰를 즐기며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엑설런스 클래스의 특별한 점은 기차에 오르자마자 느낄 수 있다. 컨시에지 코너가 마련된 데스크에서 환영 인사를 받으며, 체크인과 수하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샴페인을 곁들인 연어 수플레를 맛보며 파노라마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기막힌 풍경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노련한 승무원들이 여정 내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태블렛으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여정이 지나는 루트와 지방,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여정 중, 승무원들은 와인을 곁들인 향토식 5 코스 런치를 서빙한다. 피츠 베르니나(Piz Bernina)나 마터호른(Matterhorn)을 바라보며 맛보는 아뮤즈 부쉬와 샴페인은 그 맛이 배가 된다. 환영주나 식전주로, 글래시어 바(Glacier Bar)를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최고의 뷰를 조망할 수 있다. 여정 후반에는 디저트를 곁들인 애프터눈 티가 서빙된다. 엑설런스 클래스에서 즐기는 여정은 단순히 감각적인 만찬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고의 특별한 체험이 되어줄 것이다.

2.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으로 찾아가는 코발트 빛 하트 호수

생모리츠(St. Moritz)에서 이탈리아의 티라노(Tirano)까지 이어지는 베르니나 특급은 설국의 엥가딘(Egadine) 계곡과 남국의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알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기차다. 짐작이 되듯 높은 고도차로 인해 가파른 철도를 무리 없이 여유롭게 내려간다. 래티셰반(Rhätische Bahn: RhB)이 운행하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라인은 알프스를 통과하며 가장 스펙타클한 절경을 보여 준다. 이 구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르니나 특급에 오르는 것이다. 알프스의 가장 높은 지점들을 통과하며 알프스 겨울의 심연한 풍경을 보여준다. 래티셰반이 조달하는 에너지의 원료 및 운행 지역에서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미 2013 년부터 기관차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수력전기로 전환했고, 기차와 기차 역사에 필요한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탄소가 최소화된 외부 공기 컨트롤, 난방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 현대적인 재활용 방식 등이 도입됐다.

아침에 베르니나 특급에 올라 근사하면서도 가장 현지식다운 점심을 먹어볼 방법이 있다. 바로, 중간역인 알프 그륌(Alp Grüm)에서 정차하여 역사에 있는 식당에서 퐁뒤나, 메밀로 만든 전통 파스타, 피초케리(Pizzoccheri)와 그라우뷘덴에서 말린 육포를 풍성하게 맛보는 것이다. 현지에서 공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껏 요리한다.

알프그륌에서 풍성한 식사를 즐기고 난 뒤, 하강 곡선이 나타나는 여정을 이어간다. 팔뤼(Palü)와 함께 저 깊은 계곡 아래로 포스키아보 호수(Lago di Poschiavo)가 등장한다. 이만한 겨울 드라마가 없다.

자료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